

“경북 문경에서 특별한 추억 쌓았어요”

●영암 시종밖은지역아동센터

도 지원 동서화합 프로젝트 ‘문경새재 보리 영암에서 왔당께’ 1박2일 동안 가은아동센터·석탄박물관·진남역 등 탐방·체험

“문경시의 역사를 배우고 석탄에 대한 지식을 체득할 수 있어 지역 이해도와 친밀감이 상승했어요.”

영암군 시종면 소재 시종밖은지역아동센터가 동서화합 프로젝트로 경북 문경시를 방문해 옛 광부들의 문화와 탄광 역사를 체험하는 등 특별한 시간을 가졌다.

4일 시종밖은지역아동센터에 따르면 최근 1박2일간 경북 문경시 소재 가은지역아동센터 등과 연계해 지역 탐방 캠프 ‘문경새재 보리 영암에서 왔당께’를 진행했다.

‘문경새재 보리 영암에서 왔당께’는 전남도 예산으로 경북과 교류하는 ‘2024년 동서화합 전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지역아동센터 전남 지원단이 전남 소재 5개 지역아동센터를 선정해 추진한다.

캠프에는 시종밖은지역아동센터 아동 22명을 비롯한 지도 교사 등이 참여했다.

주요 활동은 ▲버스 안에서 ‘알고 가면 더 재미있다 문경’ 퀴즈 ▲문경 석탄박물관(문경에 코월드) 관람 ▲가은지역아동센터 방문 ▲문경새재 도립공원 탐방 ▲진남역 철로자전거 체험 ▲목련가든(약돌 삼겹살) 식사 ▲문경오미자 테마터널 체험 등이다.

5시간을 달려 문경 석탄박물관에 도착한 아이들은 먼저 경도 체험관에서 다양한 광물과 화석, 6천900여점의 유물, 실제 광산에서 사용했던 장비와 석탄 채굴 과정 등을 살펴봤다.

이어 경도 체험관에 위치한 거미열차를 타고 실감체험관인 은성경도와 광원사택촌을 둘러보고 옛 광부들의 문화와 석탄에 대한 지식을 체득했다.

점심 식사로는 과거 광부들이 먹던 밥상을 재현한 ‘행복한 광부의 밥상’을 체험했다.

박물관 관람을 마친 아이들은 지역 교류 협력을 하고 있는 경북 문경시 소재 가은지역아동센



영암 시종밖은지역아동센터 아동 22명 등이 최근 1박2일간 경북 문경시에서 ‘문경새재 보리 영암에서 왔당께’를 통해 가은지역아동센터·석탄박물관·문경새재도립공원 등을 탐방하고 체험활동을 했다. <영암 시종밖은지역아동센터 제공>

터에서 환영식을 가졌다. 가은지역아동센터는 플루트 연주와 난타 공연으로 시종밖은지역아동센터의 방문을 환영하고 문경시의 특산물인 오미자로 만든 수제 연탄젤리 등을 선물했다.

캠프 이튿날에는 문경의 국가유산을 그대로 간직한 문경새재 도립공원 일원에서 새재 옛길 등을 둘러보고 진남역 철로에서 자전거를 타며 푸른 숲 속과 시냇가를 달렸다.

또한 오미자로 유명한 문경시의 테마 터널인 문경오미자테마터널을 찾아 각종 체험과 볼거리를 즐기고 포토존에서 인생샷을 남기며 일정을 마쳤다.

캠프에 참여한 아이들은 “비록 1박2일 동안이었지만 문경시에 대한 좋은 추억을 쌓을 수 있었다”며 “석탄에 대해 배우고 문경의 역사를 들여다 볼 수 있어 유익했다”고 이구동성으로 입을 모았다. /영암=나동호 기자



광주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신입사원 23명 환영식 가제

광주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최근 신입사원 23명에 대한 환영식을 진행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3일 1박2일 일정으로 신입교육을 받았으며, 이후 장애인들의 학교·병원 나들이 등 교통약자의 원활한 이동을 돕게 된다.

항택 센터장은 “신입사원 총원으로 교통약자 이동권 확보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장애인과 노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헌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성관 기자

인사

- 동신대 ◇에너지공과대학
- ▲건축학과장 김미선 ▲산림조경학과장 김민희 ▲정보통신공학과장 정진우 ▲컴퓨터공학과장 이태원 ▲컴퓨터학과장 강승호 ▲디지털콘텐츠학과장 김은석 ▲토목환경공학과장 강대홍 ▲배터리공학과장 최진영 ▲신재생에너지학과장 윤영훈 ▲기계공학과장 송원준 ▲전기공학과장 이순형 ▲전기자동차학과장 정경권 ▲에너지경영학과장 김춘식 ▲사물인터넷학과장 정경권 ▲정보보안학과장 김중민
- ◇한의과대학
- ▲교과과장 겸 간호학과장(인중) 조영문 ▲간호학과장(학과총괄) 김수미 ▲간호학과장(입학·취업) 겸 건강증진센터장 김은아 ▲한의예과장 이미현 ▲한의학과장 겸 건강증진센터 한방진료실장 박훈평 ▲한의학교육실장 강지혜 ▲응급구조학과장 김세훈
- ◇보건복지대학
- ▲물리치료학과장 겸 건강증진센터 물리치료실장 이훈균 ▲방사선학과장 송종남 ▲보건행정학과장 이호식 ▲뷰티미용학과장 박리라 ▲사회복지학과장 조지현 ▲상담심리학과장 안주아 ▲식품영양학과장 노희경 ▲안경광학과장 전인철 ▲언어치료학과장 김성태 ▲운동처방학과장 조지훈 ▲작업치료학과장 김희동 ▲반려동물학과장 이경동 ▲바이오화학공학과장 박경목
- ◇사회문화대학
- ▲관광일본어학과장 김정구 ▲중국어학과장 황지유 ▲경찰행정학과장 김용근 ▲관광경영학과장 김영미 ▲군사학과장 류태웅 ▲도시계획학과장 안형순 ▲뮤지컬·실용음악학과장 김민호 ▲생활체육학과장 정성필 ▲소방행정학과장 박정민 ▲유아교육학과장 김정주 ▲항공서비스학과장 김수연 ▲호텔관광경영학과장 조현진 ▲공연예술무용학과장 박종임 ▲태권도학과장 김철민 ▲경영학과장 허봉규 ▲한국어교원학과장 겸 국제한국어학과장 노병호
- ◇글로벌융합대학
- ▲글로벌경영전공주임 허봉규 ▲호텔투어리즘전공주임 박태민 ▲IT전공주임 김종민
- ◇미래라이프대학
- ▲에너지리사이클링학과장 윤영훈 ▲헬스케어복지학과장 김지선 ▲K-남도문화학과장 이정호 ▲한국어교원학과장 박순희



광주전남발전협, 인재 육성 장학금 8천만원 지급

(사)광주·전남발전협의회(회장 김종재)는 지난 3일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박사과정 장학생 4명(목포대 바이오의약학과 김은빈, 전남대 기계공학과 김우혁, 전남대 고분자공학과 주양을, 조선대 기계공학과 김지연)이 선발돼 1인당 500만원씩 총 2천만원의 장학금을 받았다.

또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선행 실적이 뚜렷한

고등학교 과정 장학생 54명에게 각 50만원씩 총 2천700만원이, 다문화가정 중·고학생 68명에게는 50만원씩 총 3천300만원의 장학금이 지급됐다.

한편 광주·전남발전협의회는 지난 1983년부터 석·박사과정 장학생 536명과 행정·외무·기술고시 장학생 54명,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학업에 매진한 중·고등학교 장학생 2천248명, 다문화가정 장학생 300명에게 총 24억8천여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최명진 기자



TBN광주교통방송 ‘교통안전 합동캠페인’ 성료

TBN광주교통방송은 지난 3일 현장 생방송을 통해 TBN기획특집 ‘교통안전을 위한 착한 습관, 함께 해요! 일단 멈춤’ 합동 캠페인을 성료했다.

이번 캠페인은 민·관·인 ESG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시민들에게 교통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현장 생방송은 광주자치경찰위원회, 광주경찰청, 대한노인회 광주시연합회, 광주녹색어머니연합회, 광주모범운전자연합회 등이 참여한 가운데 첨단 우리은행사거리에서 진행됐다. 실제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광주 주요 교차로

현장에서 시민들과 만나 소통하며 적극적인 참여와 공감을 이끌어냈다는 평가다.

아울러 특별 이벤트로 진행된 운전자 및 보행자 대상 ‘일단 멈춤 인증샷’ 챌린지, 경찰청 교통민원 24시간 e-line 활용 ‘착한 운전자마리리지 서약’ 챌린지 등도 큰 호응을 얻었다.

장경화 TBN광주교통방송 사장은 “횡단보도와 정지선 앞에서 일단 멈춤하는 습관은 안전한 교통환경을 만드는 기본 습관”이라며 “광주교통방송은 앞으로도 모두가 안전한 교통 환경을 만들어가는 데 지역사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앞장설 계획이다”고 말했다. /최명진 기자

조선이공대, 전기차 배터리 중화 아이디어 ‘최우수’

최근 잇따른 전기차 화재로 배터리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조선이공대학교 재학생들이 광주권 캡스톤대회에서 ‘전기차 배터리 화재 불화수소 중화 아이디어’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4일 조선이공대학교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4 광주권 LINC3.0 캡스톤 라이즈 스타(RISE STAR)’에 조선이공대학교 케미세라팀(김보성·윤천호·송종석·김예진·은미소·이예빈)이 참가했다. 케미세라팀은 전기차 화재 시 인체에 치명적인 불화수소 방출을 인명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불화수소가 방출될 때 이를 중화할 수 있는 ‘불화수소 중화제’를 제작하는 아이디어를 제출했고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김다이지

농협 곡성군지부 ‘청소년 아침밥 먹기’ 캠페인

농협중앙회 곡성군지부는 4일 ‘전날 유관기관과 함께 곡성중학교에서 우리쌀로 만든 백설기를 나눠주며 ‘아침밥 먹기 운동’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지난달 29일 농협 곡성군지부와 곡성교육지원청의 ‘아침밥 먹기 상생협력’ 업무협약 체결에 따른 것이다.

캠페인에서는 농협 곡성군지부, 곡성교육지원청, 곡성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등이 참여한 가운데 곡성중학교 학생 255명과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쌀 소비 촉진 및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당부했다. 방현용 농협 곡성군지부장은 “청소년들이 아



침밥을 꼭 챙겨 먹기 바란다”며 “지역 유관기관과 함께 곡성쌀 소비 촉진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곡성=김영필 기자

이재은 순천대 교수, 한국경영학회 ‘최우수 논문상’

국립순천대학교는 “최근 광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제26회 한국경영학회 융합학술대회에서 무역학 전공 이재은 교수가 ‘최우수 논문상’을 수상했다”고 4일 밝혔다.

최근 사흘간 열린 26회 융합학술대회에는 경영 관련 45개 학회가 참여했으며 64개 학술 세션에서 약 300여편의 논문이 발표됐다.

각 학회의 추천을 받은 논문 중 수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재은 순천대 교수와 한가복 안동대 교수가 공저한 논문 ‘Adoption or implementation? How does ESG decoupling affect technological innovation of Korean auto parts companies?’(도입 또는 실행? ESG 디커플링은 한국자동차 부품기업의 기술 혁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가 ‘한국경영학회 최우수 논문상’ 수상 논문으로 선정됐다. 해당 논문은 최근 부상하고 있는 ESG에 주목하고 한국자동차 부품기업들을 대상으로 ESG의 도입과 실행 간 격차 즉 ESG 디커플링이 부품기업들의 기술 혁신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했다. /순천=양홍렬 기자



장흥경찰, 새학기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

장흥경찰서는 4일 ‘전날 장흥초등학교 인근에서 새학기 맞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을 펼쳤다”고 밝혔다.

캠페인은 장흥경찰, 장흥교육청, 장흥초등학교 교직원,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경우회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흥초등학교 정문과 학교 앞 사거리에서 진행됐다.

캠페인에서는 스쿨존 안전속도 30 준수,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 ‘방어보행 3원칙(서다-보다-걸다)’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홍보했다.

박흥원 장흥경찰서장은 “개학기를 맞아 어린이 외부 활동이 증가해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



기 쉽다”며 “스쿨존 내 주정차 위반 행위 지도·단속 및 등하굣길 보행 지도 등을 지속 전개해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장흥=노형록 기자

결혼

▲조수환·김선씨 아들 사관군, 장훈일·이도순 씨 딸 은정(광주매일신문 기자)양=7일(토) 오후 2시 홀리데이인 광주호텔 2층 라벤더홀.

▲이근성·연옥순씨 아들 현진군, 김민수(코리아정보리서치 대표)·김선희씨 딸 윤정양=8일(일) 오전 11시 서울대학교 연구공원 웨딩홀(010-2077-2012).

▲이태일·김정숙씨 아들 동근군, 이인중·윤영숙씨 딸 혜인양=21일(토) 오후 1시50분 서울 영등포 위더스웨딩홀 7층 펠리체홀. 피로연=7일(토) 오후 5시 광주 까사디루체 지하 1층 연회장(010-9231-3096).